

日本 古代 石塔의 建立 背景과 展開*

吳虎錫**

- I. 머리말
- II. 현황 및 특징
- III. 석탑의 출현과 건립배경
- IV. 전개양상과 石塔寺3層石塔의 건립시기
- V. 맺음말

I. 머리말

불교가 발생된 인도를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등에는 예배·수행·포교의 목적으로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사원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佛殿과 塔을 중심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塔은 佛舍利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엄하기 위한 건축물로써 土塔·木塔·磚塔·石塔·磁塔·鐵塔·靑銅塔·金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한·중·일 3국의 佛塔 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할 때, 한국은 '석탑의 나라',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전탑의 나라'와 '목탑의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¹ 이는 현재 남아있거나 건립되었던

* 이 논문은 2016년 6월 11일 개최된 2016 미술사학대회의 한국미술사학회 패널 “동아시아 고대 석조 불탑의 현황과 비교 연구”에서 발표한 「일본 고대 석조 불탑의 건립 현황과 특징」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¹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 10; 杉山信三, 「朝鮮의 石塔」(彰國社, 1944), pp. 10-11.

불탑이 각자의 풍토와 민속 등의 사정에 맞게 발전되고 특성화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² 불교 문화사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³ 그러나 실제 한·중·일 3국은 여러 가지의 재료로 탑이 조성되었으며 석탑 역시 다양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매우 독특한 석탑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현재 石塔⁴을 層塔, 寶塔·多寶塔, 五輪塔, 寶篋印塔, 無縫塔, 笠塔婆, 板碑 등 7종류로 구분하고 있다.⁵ 이 가운데 笠塔婆와 板碑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모두 1,683여기 이상의 석탑이 남아있으며, 일반적 석탑의 유형인 層塔의 경우 173기 이상으로 파악된다.⁶ 층탑은 3층에서 13층의 다층탑을 말하며, 평면은 4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록 平安時代 이전까지 많은 수의 층탑이 건립되지는 못하였으나 奈良時代부터 이미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본 석탑의 정형양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고대 석탑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세부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 내 고대 석탑의 출현과 관련하여 한반도 불교문화의 일본 전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最古의 석탑으로 소개된 石塔寺 석탑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한반도로부터의 불교전래에 따른 자부심 내지는 한반도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내면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다만, 최근에 들어와 양식의 고찰을 통한 비교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 문제를 奈良県 檜隈寺 석탑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石塔寺 3층석탑으로 대표되는 백제계와 鹿谷寺 13층석탑으로 대표되는 중국계의 석탑이 발생하였으나 성행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⁸ 또한, 石塔寺 석탑을 ‘백제양식’을 공유하는 백제계 석탑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백제양식석탑과 비교하기도 하였

2 杉山信三, 위의 책, p. 11.

3 엄기표, 「中國 云居寺의 唐代 石塔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9(동악미술사학회, 2008), p. 249.

4 일본은 석조탑을 다층탑과 오륜탑 그리고 판비 등 기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古川登, 「越前坂井市の石造多層塔」, 『若越郷土研究』52(福井県郷土誌懇談會, 2008, p. 11), 이 글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조의 불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若杉慧, 『日本の石塔』(木耳社, 1970), pp. 129-130.

6 日本石造物辭典編集委員會, 『日本石造物辭典』(吉川弘文館, 2012). 전체 수 1,683은 일본에서 석탑으로 분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른바 浮屠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된 숫자이며, 여러 기가 같은 곳에 건립된 石塔群의 경우 개별 탑의 수를 포함하였다. 1970년대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古석탑의 수에 대해 『日本石材工藝史』를 인용하여 東北 11기, 關東 65기, 中部 30기, 近畿 155기, 中國 34기, 四國 33기, 九州 46기 등 모두 374기로 파악되기도 한다(若杉慧, 앞의 책(1970), p. 107).

7 원영상, 「한국학계의 일본불교연구 동향」, 『한국불교학』 제68집(한국불교학회, 2013), p. 601.

8 신용철, 「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 - 나라현 히노쿠마데라(檜隈寺) 석탑을 중심으로 -」, 『미술사와시각문화』8(미술사와시각문화학회, 2009), pp. 98-127.

다.⁹ 이처럼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국학계에서 일본 초기 석탑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석탑의 전형적인 석탑이 만들어지기 전, 즉 불교 전래 이후 석탑의 출현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본 석탑의 전반적 양상과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시간적으로는 일본에서 석탑이 건립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석탑 건립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9세기 이전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¹⁰ 우선, 일본에 남아있는 古代 석탑의 분포양상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고대 석탑의 건립 배경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 최고의 석탑으로 알려진 石塔寺 3층석탑의 건립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논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현황 및 특징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의 고대 석탑은 일반형의 층탑 6기와 특수형의 적석탑과 마애탑이 각각 1기씩 확인된다. 이들 석탑은 近畿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奈良県 奈良市와 大阪府 太子町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불교문화가 奈良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당시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동시에 일본에서의 석탑 전개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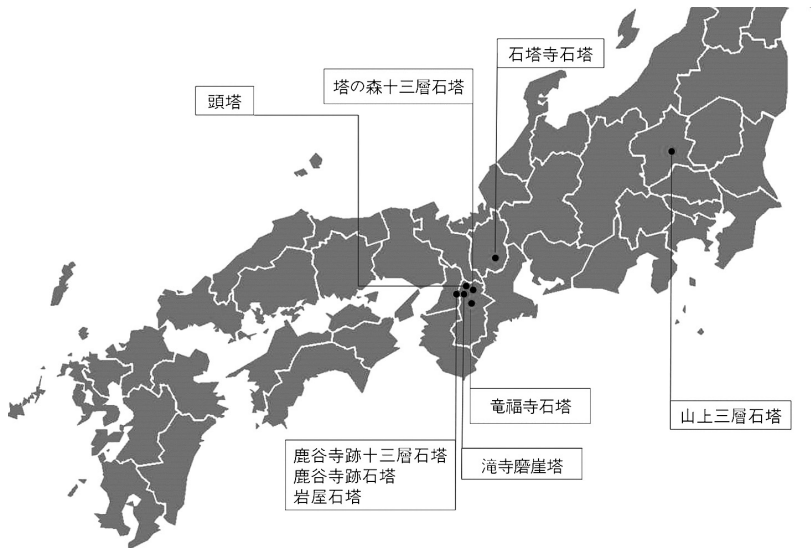
〈표 1〉 일본 고대 석탑의 현황

번호	탑명	소재지	시대(년)	유형과 특징	높이(m)	재질
1	瀧寺磨崖塔	奈良県 奈良市 大和町瀧寺磨崖佛	奈良時代 (645-709)	평면방형, 3층, 2층기단, 상층기단 사리공	0.8	안산암
2	鹿谷寺址13層石塔	大阪府 南河内郡 太子町	奈良時代後期	평면방형, 13층, 전부재 일체형(압반)	5.1	응회암

⁹ 전지혜, 「백제양식석탑과 일본 석탑사(石塔寺) 석탑의 비교 연구 - 건립연대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30(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pp. 479-494.

¹⁰ 일본에서 古代는 8세기 초반인 奈良時代부터 平安時代(8세기말-12세기)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문을 통해 건립연대가 확인되는 山上3層石塔(801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석탑은 山上3層石塔을 기점으로 9세기에 일시적인 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대략 8세기 중반이후 발생하여 일본식 석탑의 특징적 양식을 이룩하게 되는 9세기 초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고자 한다.

3	鹿谷寺跡石塔	大阪府 南河内郡 太子町	奈良時代後期	평면방형, 상부 추정 사라공, 전 부재 일체형(암반)	1.7	응회암
4	岩屋石塔	大阪府 南河内郡 太子町	奈良時代後期	평면방형, 단층기단, 2층殘, 기단과 탑신 1석	3.3	응회암
5	龍福寺石塔	奈良県 高市郡 明日香村	天平勝宝三年(751)	평면방형, 다층, 각부재 각 1석	1.8	응회암
6	塔の森13層石塔	奈良県 奈良市 田原町 長谷	奈良時代後期	평면6각, 2층기단, 13층, 각부재 각 1석	2.4	응회암
7	頭塔	奈良県 奈良市 高畑町	奈良時代後期(767)	평면방형, 7층(단), 불상부조(44), 토석 혼축, 상부 6각 석탑재 출토	8	-
8	山上三層石塔	群馬県 桐生市 新里町	延暦二十年(801)	평면방형, 3층, 3석	1.85	안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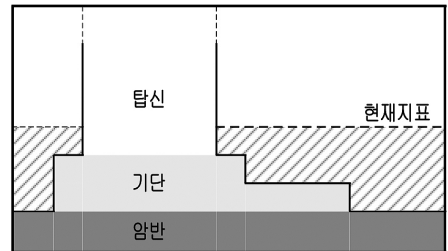
도 1 일본 고대 석탑의 분포

먼저, 瀧寺磨崖塔(도 2)은 奈良市 大和町 瀧寺磨崖佛에 새겨진 마애탑이다. 마애탑은 높이 3.3m, 너비 3.5m의 안산암에 조각되어 있다. 바위 중앙에는 높이 45cm, 너비 34cm, 깊이 20cm의 감실이 조성되어 있고, 이 감실 좌우로 높이 80-90cm 높이의 삼층탑이 부조되어 있다. 향좌측 탑은 기둥과 심주 등이 보이고 지붕은 처마가 들린 목조탑의 형태인데 비해 향우측의 탑은 상하 2단의 기단 위에 탑신부를 올린 모습이다. 지붕이 평박하고 처마 밑단이 살짝 아래로 경사졌



도 2 瀧寺磨崖塔 실측도(奈良県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89, p. 341)

한다. 이곳은 고대 大和國과 河内國을 연결하는 교통로인 竹内佳道가 지나는 곳으로서 古墳時代부터 응회암 채석장으로 활용된 곳이었다. 이곳에 응회암 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한 남북 25m, 동서 20m 정도의 평탄지에 선각마애아미타삼존불과 13층 석탑이 남아있다. 석탑은 평탄지의 북단 중앙부에 위치하며 현재 13층 일부까지 남아있는데 하부 폭 약 1.5m, 높이는 약 5m이다. 전체가 1석으로 조성되었다. 탑신은 1층 탑신을 제외하고 옥개가 중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층 탑신을 제외한 나머지 탑신은 높이가 매우 낮고 옥개의 처마는 매우 짧다. 1층 탑신 남면에 높이 35cm, 너비 20cm의 방형의 감실이 뚫려있다. 현재는 별도의 기단 없이 탑신부가 있는 형태로 보이나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에 있는 석탑 복원모형을 보면 1층 탑신 아래로 1단의 기단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애삼존불 감실을 향한 동면은 기단 아래쪽으로 길게 단을 내려 2단의 계단 형태를 이루고 있어 마치 배례석과도 같은 독특한 모습이다. 사지에서 출토된 土師器와 須惠器 등의 편년이 8세기 2/4기에 해당되므로 석탑의 건립연대 또한 8세기 중반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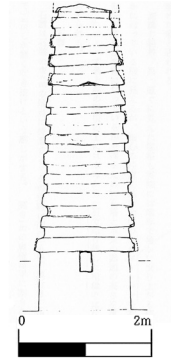
도 3 鹿谷寺址13層石塔 기단 모식도

으며, 처마 끝에는 풍탁이 매달려 있다. 전체적으로 석탑을 모방하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탑 모두 기단부 상면 중앙에 원형 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사리봉안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애불 기단 중앙의 발굴조사 결과 조성 시기는 奈良時代이며 구체적으로는 白鳳時代(645-709)에 해당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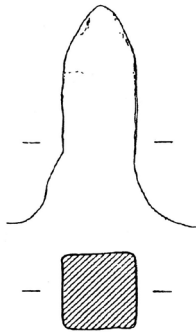
鹿谷寺址13層石塔(도 4)은 二上山(해발 517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봉우리 끝부분에 위치

¹¹ 奈良県立橿原考古學研究所, 『奈良県遺跡調査概報 1986年度』第2分冊(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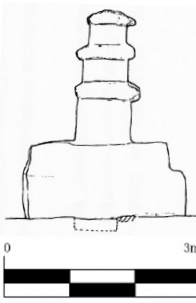
¹² 太子町立竹内街道歴史資料館, 『二上山麓の古代寺院』(1995), pp. 65-66.



도 4 鹿谷寺址13層石塔(실측도: 山本義孝, 1993, p. 27)



도 5 鹿谷寺址石塔(실측도: 山本義孝, 1993, p. 27)



도 6 岩屋層塔(실측도: 山本義孝, 1993, p. 33)

한편, 鹿谷寺址13층석탑에서 동남쪽으로 50여m 떨어진 능선 상면에 소형 석탑 1기(도 5)가 남아있다. 협소한 공간에 자리한 석탑은 방형의 평면이나 현재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기단·탑신·옥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탑은 상부가 뾰족한 첨두형으로 상부 1면에 구멍 형태의 홈이 남아있다. 이는 감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리공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鹿谷寺址13층석탑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이 아닌 암반과 1석으로 조성되었다. 鹿谷寺址에서 동쪽으로 400m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岩屋石塔(도 6)이 있다. 탑이 자리한 곳에는 2기의 석굴이 조성되어 있는데 東向한 서쪽 大石窟 내부 북벽에는 삼존불입상이 부조되었고 중앙에 석탑이 남아있다. 석탑은 방형의 3층 석탑으로 鹿谷寺址13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암반을 지대석으로 삼고 있으며, 1석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석탑의 잔존 상태와 석굴의 천정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원래 5층 이상의 석탑으로 판단된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3.3m, 기단은 너비 2.5m, 높이 1.2m로 높이 2.1m인 탑신부에 비해 크고 높다. 기단 하부에는 작은 홈이 마련되어 있는데 마치 水曹형태로 물빠짐 또는 물을 모아두기 위한 關伽井이라고도 추정되기도 하지만 위치나 구조상 舍利孔이었을 가능성도 있다.¹³ 岩屋석탑의 조성 시기는 부근에서 須惠器 등이 출토되어 鹿谷寺址와 마찬가지로 8세기 중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¹³ 山本義孝, 「二上山麓の石窟寺院-鹿谷寺·岩屋の資料化と背景」, 『史學論叢』2(別府大學 史學研究會, 1993), pp. 34-35.

龍福寺石塔(도 7)은 竹野王碑로 알려져 있으며,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의 龍福寺 경내에 위치한다. 석탑은 응회암의 방형 다층탑으로 풍화와 파손이 심해 원형을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개략적인 현황과 일부 세부 수법은 살필 수 있다. 현재 높이는 1.9m로 4층 탑신까지 남아있으며, 탑신 4면에 명문이 있다. 모든 부재는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다. 옥개석은 처마가 짧고 경사졌으며, 하면에 1단의 받침이 있고 모서리 처마부분이 ‘^’형태를 띠고 있어 목조지붕의 추녀를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높이 있는 4층 탑신석 상면 중앙에 위로 솟은 방형의 턱이 있고 가운데에 있는 원형의 홈은 사리공으로 추정된다. 명문에 따르면 天平勝寶 3년(751)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탑의 원위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나 江戸時代 말기의 기록 등을 따르면, 현재 龍福寺에서 石舞台古墳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서북쪽으로 흐르다 동북방향으로 곡류하는 지점의 서쪽 구릉지로 알려져 있다. 석탑의 원위치는 석탑 명문에 보이는 “朝風南…”이 근거가 되는데, 朝風(혹은 旦風)은 『萬葉集』, 『長玉王家木簡』 등에도 등장하는 지명으로 龍福寺石塔의 건립 장소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된다. 현재 주변지역 가운데 飛鳥川 상류역의 서안에 해당하는¹⁵ 곳의 현재 지명이 朝風 고개(峠)이며, 이곳은 龍福寺에서 북서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도 7 龍福寺石塔 ①·②전경, ③최상층 옥개석 윗면, ④3층 옥개석 모서리 아랫면 ⑤실측도(奈良縣編, 1914, 第4圖, 필자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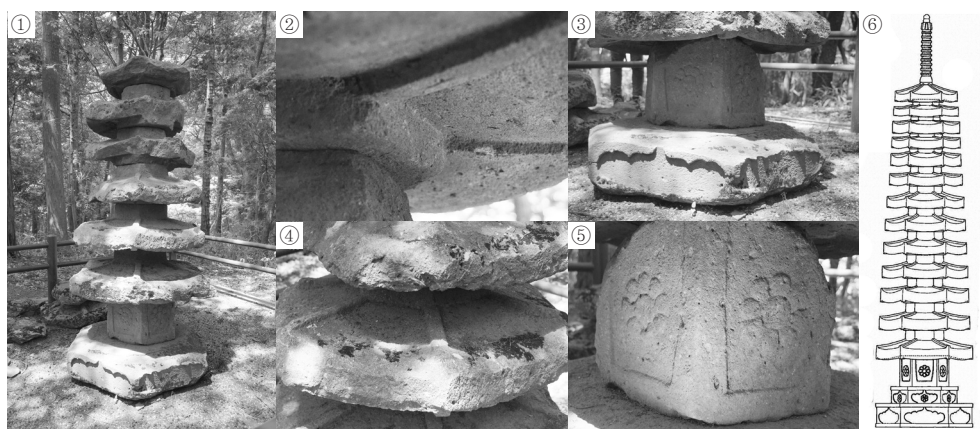
塔の森13層石塔(도 8)은 奈良縣 奈良市 長谷町에 위치한 해발 660m의 国見山 봉우리 정상부의 평탄지에 건립되어 있다. 석탑의 재료는 春日石이라 불리는 연질의 응회암으로 풍화와 도괴에 의한 파손이 심하다. 현재 6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탑신석과 옥개석 등의 부재가 흩

¹⁴ 奈良縣編, 『奈良県史蹟勝地調査會報告書, 第二回』(内良明新社, 1914).

¹⁵ 相原嘉之, 「奥飛鳥における文化的景観の形成 -飛鳥川上流域の考古學研究を中心に-」, 『明日香村文化財調査研究紀要』8(明日香村教育委員會, 2009).

어져 있다. 높이는 2.4m로 원래 2중 기단을 갖춘 6각형의 13층석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층기단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안상을 새겼으며 상층기단은 측면에 6엽의 연화문이 장식된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상하층기단의 안상은 모두 정상부 중앙이 합장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1층 탑신에는 각 면에 하협상광의 額을 새기고 그 안에 지방이 큰 8엽의 연화문을 장식하였다. 옥개석 아랫면에는 1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모서리마다 서까래를 돌출시켰으며 윗면 역시 모서리마다 마루를 표현하였다. 각 모서리 측면부에 圓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풍탁 등의 금속제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개석 윗부분에는 낮은 탑신을 함께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탑신 상면 중앙에 정방형의 축을 마련하여 위층의 옥개석을 끼워놓을 수 있게 하였다.



도 8 塔の森13層石塔 ①전경, ②6층 옥개석 아랫면, ③하층기단 및 1층 탑신, ④2층 옥개석 윗면, ⑤1층 탑신 세부, ⑥복원도(奈良文化財研究所, 2001, p.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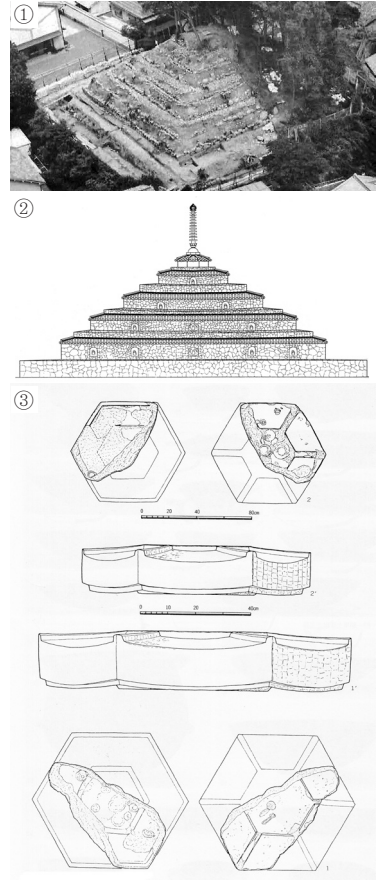
이 탑은 인근의 塔尾寺라는 사찰과 관련이 있는 공양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존하는 일본 고대 석탑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과 수법을 간직한 석탑이다. 석탑의 6각 평면 형태는 正倉院에 소장된 箱類의 床脚, 동대사 法華堂 弁財天像臺座(8세기중엽), 唐刹 毘提寺 金堂 須彌壇(8세기후반)과 비로자나불상 대좌(8세기후엽), 東大寺 소장 금동보살반가상(8세기후엽) 등 奈良時代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전래되거나 제작된 여러 예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들 유물에서 확인되는 안상이 塔の森13層石塔의 안상과 매우 유사한 점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안상은 平安時代 초기 안상과 비교하면 奈良時代 후반에 더 가까울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¹⁶

頭塔(도 9)은 東大寺 남쪽에 위치한 방형의 계단형 적석탑으로 토석 혼축이다. 이 탑은 최초

¹⁶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史跡頭塔發掘調査報告』(2001), p. 180.

건립 당시 적석과 불보살상 등이 부조된 석재로 구성된 탑신부와 찰주 및 상륜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상에 노출된 방형 7층의 불탑 유구를 上層頭塔¹⁷으로 부르고 있는데 발굴조사 결과, 良弁(689-773)과 제자 實忠(723-?) 등 두 승려의 주도로 건립된 후 平安時代に 붕괴되어 11세기와 14세기에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단은 동서 최대 33m, 남북 32m이고 높이는 西面 1.6m이다.¹⁸ 기단은 내부를 판축한 후 외면에 기단 판축토를 단이 지도록 다시 삭토한 후에 50×30×30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적석하였다. 탑신은 1층이 동서 최대 20.8m, 남북 최대 21.75m이고 2층은 동서 최대 13.8m, 남북 14.3m로 추정되었다. 발굴조사에서 부조상의 석불 다수가 출토되었는데, 중심 주제는 『華嚴經』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⁹ 상층 頭塔 심주공에서 神功開寶(765-)와 隆平永寶(799-), 琥珀 등이 발견되어 탑 건립과 중수 과정에서 埋納의 의례가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이 밖에 奈良時代의 東大寺式 연화문 수막새기와와 당초문 암막새기와를 비롯한 기와류와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기와는 부조상 위 혹은 각 층에 사용한 瓦葺의 증거가 되고 있다.

한편, 발굴조사에서는 평면 6각 형의 석탑 옥개석으로 확인된 6각 석탑의 존재는 奈良時代 말기 탑 정상에 세워진 찰주(심주)가 낙뢰로 파손되자 平安時代に 응회암제 6각 13층석탑을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七大寺巡禮私記』²⁰에 平安時代 말기의 탑의 상황을 “十三重의 大墓”라



도 9 頭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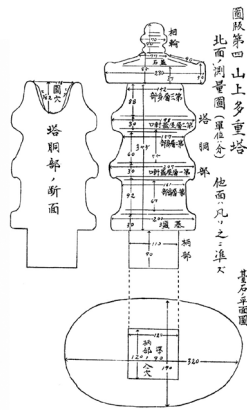
- ① 전경(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PL2-2.)
- ② 추정복원도(위의 책, PLAN6-1)
- ③ 頭塔출토 석탑 옥개석(위의 책, PL.78.)

¹⁷ 下層頭塔은 6세기 고분을 파괴하고 조탑 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¹⁸ 발굴조사후 복원과정에서 적석부의 높이는 1.8m로 복원되었다.

¹⁹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1), p. 82.

²⁰ 大江親通(?-1151)가 당시 南都七大寺인 東大寺, 興福寺, 元興寺, 西大寺, 藥師寺, 大安寺, 法隆寺 등을 巡禮하고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七大寺日記』 또는 『七大寺巡禮私記』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10 山上3層石塔(左: 前沢和之, 2008, p. 69 / 右: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7, p. 36.)

기록한 것이 주목된다.²¹

山上3層石塔(도 10)은 群馬県 桐生市 新里町 大字山에 자리하고 있어 일본의 고대 석탑 중에서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다. 석탑은 多孔性 안산암을 재료로 지대석, 탑신, 상륜부를 갖춘 형태로 각 부재의 색이 모두 다르다. 지대석은 99×75.5cm의 타원형으로 두께는 30cm이다. 상면 중앙에 정방형의 홈을 마련하여 탑신부의 하부 축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탑신부는 축을 갖춘 탑신부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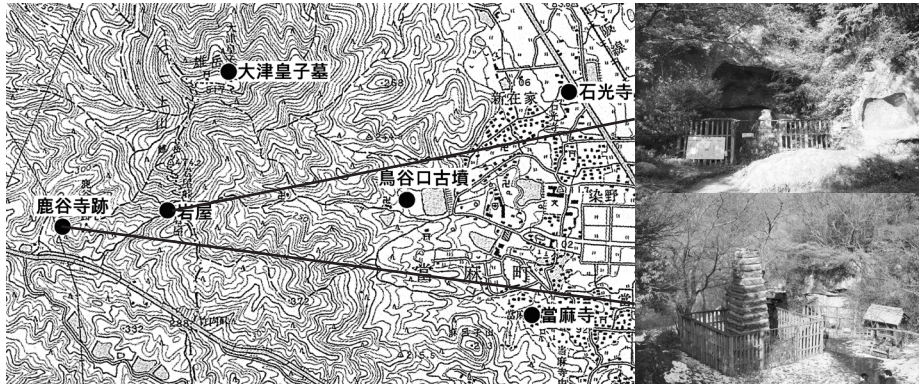
탑신까지 이어지는데 높이는 103.5cm, 폭은 60cm이다. 하단의 축 위에 낮은 기단을 마련하고 탑신부를 마련하였으며 3층 탑신 상면에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홈이 있다. 3층 옥개석은 별석으로 높이는 24.5cm이고 너비는 51~70cm이다. 사모지붕의 형태이며 처마는 수평이고 모서리마다 우동마루를 표현하였다. 마루 끝이 솟아 있고 방형의 낮은 노반을 마련하여 상륜부를 받고 있다. 상륜은 1석으로 3단을 이루며 옥개석에 마련된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높이 28cm, 지름 16cm이다. 山上3層石塔은 탑신 4면 각 면에 横書로 새겨진 45자의 명문을 통해 延暦 20년(801)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고대 석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우선, 奈良時代 석탑은 二上山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도 11). 二上山은 일본 大和盆地的 서남부로 大阪府와 奈良県の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응회암이 분포되어있다. 鹿谷寺와 岩屋, 龍福寺 석탑은 이 二上山의 응회암²²을 조성되었다. 이는 특관계급이 사용하는 특별한 석재로서 古墳時代에는 고분 축조, 사

²¹ 頭塔 상부의 6각 석탑과 관련하여 1106년 편찬된 『東大寺要録』 卷第六 末寺章 第九 新薬師寺条에는 實忠이 新薬師寺의 서쪽에 石塔을 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小岩正樹, 『日本古代建築における様の研究』(早稲田大学大学院 博士學位論文, 2014), p. 30). 비록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8세기 중반의 상황을 적고 있는 것으로 현재 新薬師寺에 남아있는 5층석탑은 鎌倉時代의 탑으로 8세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8세기 석탑과 관련한 다른 자료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新薬師寺에서 서쪽으로 700m가량 떨어진 곳에 頭塔 위치하고 있으므로 頭塔이 그 석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발굴조사에 출토된 6각형의 다층석탑도 實忠이 세웠다는 석탑일 가능성도 있다.

²² 龍福寺石塔의 재료인 응회암은 二上山에서 생산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古代の碑-石に刻まれたメッセージ-』(1997), p. 45.

찰 주요 건물의 기단과 계단, 平城京 축조 등에 사용되었다. 즉, 二上山은 관영채석장으로서 6세기 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 약 2세기 동안 활용되었다.²³ 따라서 鹿谷寺와 層岩의 석굴사원의 창건은 관영채석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칠 때 즈음 신성한 산의 신과 채석장 운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불사와 관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채석 기술력이 밑바탕되었을 것이다. 현재 鹿谷寺址와 岩屋이 위치한 능선은 二上山의 雄岳 남쪽의 봉우리인 雌岳의 능선에 해당한다. 이는 雄과 雌의 양과 음이라는 대응 관계 속에서 볼 때, 二上山에 대한 산악숭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토착적인 山神 숭배와 불교의 습합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응회암은 비록 풍화에는 약하지만 耐火性이 우수하고 가공이 쉬운 이점이 있어 화재에 취약했던 일본의 목조건물의 기단과 초기 석탑의 건립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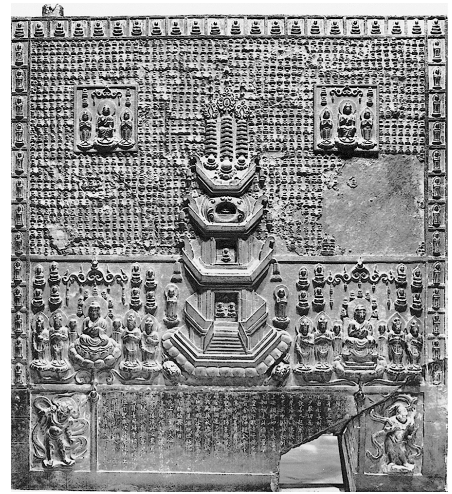
도 11 二上山의 위치(지도 출처: 竹内街道歴史資料館, 1995, p. 10의 부분, 필자수정)

현재 일본의 고대 석탑 중 원위치가 확실한 것은 鹿谷寺와 岩屋의 석탑이다. 마애불과 일직선을 이루고 조성되었는데 鹿谷寺址는 西向이며 岩屋의 경우는 南向이다. 이는 고대의 주요 교통로인 竹内街道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 석굴사원은 위치 선정과 설계 등 조성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석탑은 불상이 새겨진 석굴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탑을 신앙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사원의 중심 구조물로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고대 사찰 조영에서 탑의 위치는 가람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위치

²³ 山本義孝, 앞의 논문, p. 23.

일본의 불교는 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변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삼국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으로의 불교문화 전수는 7세기 중반까지도 통일신라의 불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불교의 영향과 일본 불교의 독자적인 진전도 함께 모색되었다.²⁶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669년 제6차 견당사를 파견한 이후 701년에 이르러서야 제7차 견당사를 파견하는 등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에 반해, 고구려 패망 이후 신라와 일본은 당의 압박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일본은 10차례에 걸쳐 견신라사를 파견하였으며 신라 사절 또한 25회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매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이 불교 수용의 중요한 방법이었던 유학승의 비중을 보아도 신라 문무왕 이전에는 15명의 당 유학승이 있었던 것에 비해 신라 유학승은 1명이었으나 신문왕대-효소왕대까지 신라 유학승 8명, 당 유학승 3명으로 전혀 다른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²⁷ 따라서 통일신라의 불교문화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도 14 長谷寺銅板法華說相圖(片岡直樹, 2012.)

한편, 8세기 일본 불교는 율령국가의 불교로 성장하면서 국가불교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國分寺의 설치의 지방의 사원에까지 관사불교 체제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일본에서 불탑의 건립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석탑은 불교 공인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등장하였다.

일본에서 석탑과 관련된 最古의 자료는 奈良國立博物館 소장의 〈長谷寺銅板法華說相圖〉이다(도 14). 『法華經』見寶塔品을 표현한 것으로 銅板 중앙에 6각형의 多寶塔을 그렸는데, 연화문을 장식한 기단 위의 1층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의 2불, 2층에는 다보여래, 3층에는 사리용기를 표현하고 3體의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은 일본의 목조탑과는 다른 3층의 석조탑을 모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⁸ 동판 하단에 모두 27행의 명문이 남아있어 698년(天武天皇 3

²⁶ 홍윤식, 「古代日本佛敎에서의 三國佛敎의 역할」, 『國史館論叢』 24(국사편찬위원회, 1991), pp. 67-68.

²⁷ 정병삼,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 『한국고대사연구』 27(한국고대사학회, 2002), pp. 124-129.

²⁸ 福地謙四郎, 『日本の石造層塔』(理工學社, 1995), p. 39.

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동판은 初唐時期의 조각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²⁹ 중국계 기술자에 의한 제작설과 중국 기술의 한반도 경유설, 한반도 영향설 등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판 중단 좌우에 새겨진 寶珠捧持菩薩像이 중국 남조에서 시작하여 백제를 거쳐 일본에 전래된 것이고, 동판 명문 중의 구양순체는 고구려에서 유행하여 일본에는 7세기 후반에 한정되어 성행하는 점, 그리고 『扶桑略記』 등 史書에 동판의 제작 주체인 僧道明이 백제계 도래씨족 출신이라는 점 등에서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⁰

고대 일본의 석탑 건립배경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있는 유물은 龍福寺石塔과 山上3層石塔이다. 龍福寺石塔은 명문 말미에 근거하여 竹野王의 墓塔이라는 내용이 보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설은 부정되고 佛塔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표 2〉 龍福寺石塔의 銘文³¹

구분	北(4행)				西(7행)				南(8행)		東(7행)				
	4	3	2	1	7	6	2	1	3	1	7	6	3	2	1
명문	從 二 位 竹 野 王	子	辛 卯 四 月 廿 四 日 丙	天 平 勝 寶 三 年 歲 次	同 遊	□ 之 長	緣 卽 □	□ 斷 □ 非 虛 非 有 □	□ 之 峰 □ 北 □ 田 □ 谷	之	號 日 朝 風	其 來 尙 □	□ 彌 □	塔 遍 閭 □	昔 阿 育 寶 □ 八 萬 四 □

龍福寺石塔 명문(표 2)의 첫 구(동면 1-2행)는 “옛날에 阿育王이 8만4천 탑을 閻浮에 두루 세웠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육왕 8만4천 탑 古事는 『中阿含經』 권23·49와 『阿育王經』 권1, 『大唐西域記』 권8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경전은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다. 아육왕 고사의 일본 전래와 관련해서는 奈良 藥師寺에 소장된 佛足石 명문이 참고가 된다. 佛足石은 藥師寺 佛足堂에 안치되어 있는데 112×115×67cm 크기의 사암계의 자연암




²⁹ 九州國立博物館, 『古代日本と百濟の交流』(2015), p. 115.

³⁰ 片岡直樹, 「長谷寺銅板法華說相圖の銘文について」, 『新潟産業大學經濟學部紀要』 第40號(2012), p. 14. 道明은 弘福寺(川原寺)의 승려로 속성은 백제계인 六人部氏이다.

³¹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古代の碑-石に刻まれたメッセージ-』(1997), p. 46.

에 석가모니 足跡圖를 선각한 것으로 바위 측면 사방에 佛足石의 유래를 새겨 놓았다.³² 명문에 의하면 文室真人智라는 사람이 亡夫人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753년(天平勝寶 5년)에 『大唐西域記』를 이용하여 阿育王 고사를 기록하였다.³³ 文室真人智는 長親王의 아들로 태어난 天武天皇의 손자로 長屋王과는 친척지간이다.³⁴ 다음으로 龍福寺石塔 명문 중에 보이는 “竹野王”과 “朝風南…” 역시 왕족에 의한 탑의 건립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다. 竹野王은 平城宮 庭園유적에서 출토된 木簡에도 보이는 이름으로 『續日本記』에 보이는 인물과 동일인으로서 天武天皇의 손자인 長屋王(684~729)과 가까운 인척으로 여겨지고 있다.³⁵ 따라서 이를 통해 飛鳥時代 당시 석탑의 건립과 불사와 관련하여 왕실과 그 친인척이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왕실 내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공덕을 쌓는 신앙이 퍼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山上3層石塔의 銘文³⁶

위치	남면	서면	북면	동면	탑본 및 명문의 순서
3층	如法經坐	奉爲朝廷	神祇父母	衆生含靈	 靈 含 生 衆 母 父 祇 神 庭 朝 爲 奉 坐 經 法 如 (上層)
2층	小師道	輪延曆	廿年七	月十七日	 日 七 月 七 年 廿 曆 延 輪 道 師 小 (中層)
1층	爲口无間	受苦衆生	永得安樂	令登彼岸	 岸 彼 登 令 樂 安 得 永 生 衆 苦 受 間 无 □ 爲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東面) (北面) (西面) (南面) </div> (下層)

*출처: 前沢和之, 2008, p. 69.

山上3層石塔은 각층에 명문이 음각되었는데〈표 3〉, 남-서-북-동면의 순으로 판독된다. 명문은 3층에서부터 1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상층 각 면 4자, 2층 각 면 3자(동면만 4자), 1층 각 면 4자 등 모두 45자이다.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如法經(法華經)』에 따라 조정과 神祇, 부모, 중생과 혼령을 위하여 소사 道輪이 801년(延曆 20년) 7월 17일에 심 없이 고통 받는 중생이 영

³² 川勝政太郎, 『日本石造美術辞典』(東京堂出版, 1998), pp. 262-263.

³³ “釋迦牟尼佛跡圖 案西域傳云 今摩揭陀國昔阿育王古精舍中…”

廣岡義隆, 『佛足石記·佛足石歌碑本文影復元』, 『日本語學文學』1990-1(三重大學 日本語學文學部, 1990), p. 38.

³⁴ 廣岡義隆, 『文室真人智努の生涯: 天平一知識人の憂愁』, 『日本語學文學』1991-2(三重大學 日本語學文學部, 1991), p. 34.

³⁵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앞의 책, pp. 46-48.

³⁶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위의 책, p. 34.

원한 안락을 얻고 피안에 오르길 바란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平安時代 初期 민간 불교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³⁷ 구체적으로는 上野지역의 道忠敎團, ‘蝦夷征討’事業과의 관련성, 神佛習合의 확대 등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로 건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⁸ 道忠敎團은 일본 律宗의 2祖인 道忠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道忠은 753년 唐에서 일본으로 온 鑑眞(688-763)의 제자로 중앙의 法華敎團과의 교섭을 통해 중앙집권적 호국사상을 민간에 활발히 전파하였다. 따라서 명문의 ‘如法經과 ‘朝廷’ 등은 석탑을 건립한 道輪이 이러한 호국이념을 지지하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명문에 보이는 ‘神氏’는 토착신앙과 불교 습합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奈良時代 후반 이후 민간에서 유행한 神宮寺院 건립에는 雜密系 승려들이 주역이 되었는데 이들은 사원의 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령국가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찰의 神宮寺化를 촉진하였다. 이들 가운데 山上3層石塔이 있는 上野지역에서 785년(天應 2년) 勝道上人은 日光二荒山(栃木県 日光市)에 산문을 열어 桓武天皇 집권 시기(781~806)에 上野國의 講師가 되었다. 山上3層石塔이 있는 赤城山 일대에서 확인된 宇通遺蹟에서는 초석건물지를 비롯한 수혈주거지에서 上野國分寺系의 기와와 소조상편, 동제 神像 등이 출토되었으며, 御殿遺蹟에서도 雜密系 法具인 징(鏡)의 鑄型이 출토되는 등 불교관련 유물이 확인되었다.³⁹ 따라서 山上3層石塔이 위치한 일대는 당시 神佛習合에 따른 불교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볼 때, 山上3層石塔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Ⅵ. 전개양상과 石塔寺3層石塔의 건립시기

1. 일본 고대 석탑의 전개양상

Ⅱ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의 고대 석탑의 출현과 관련해 초기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瀧寺磨崖塔이다. 마애탑은 바위 면이나 돌에 선각, 또는 양각으로 새긴 탑으로 불교 숭배의 한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南北朝時代부터 석굴사원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당대를 거치면서

³⁷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위의 책, p. 33.

³⁸ 小池浩平, 『山上多重塔建立の社會背景』, 『古代の碑-石に刻まれたメッセージ』(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7), pp. 8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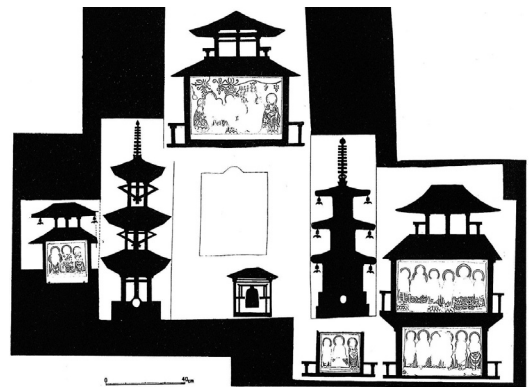
³⁹ 小池浩平, 위의 논문, p. 91.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이들 마애탑에 대해서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의 기둥과 벽면의 장식, 천개를 지지하는 기둥 등의 기능으로 주목되었으나⁴⁰ 승려나 재가신자의 묘탑 혹은 사리탑인 浮屠로서 조성된 예 또한 상당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신라마애탑이 10기 이상 확인되었는데 7세기 말에 목탑형 마애탑이 등장하여 8세기 공백기를 거쳐 9세기에 이르면 석탑형 마애탑으로 변화된다.⁴¹

특히 경주 탑곡의 마애탑은 한국 탑과의 전개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어 왔다. 이는 7세기 말에 등장한 신라적인 목탑형 마애탑으로서 목탑 중심의 쌍탑 가람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석탑형 마애탑은 경주 백률사 마애탑을 비롯하여 경주 근제리 석불입상 광배에 새겨진 탑, 백률사 출토 석주에 새겨진 마애탑 등 9세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瀧寺磨崖塔 또한 일본 고대 사원의 가람배치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석탑의 모습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瀧寺磨崖塔은 목탑형과 석탑형이 각각 1기씩 조성된 쌍탑 가람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석탑형 마애탑은 2층기단과 상층기단의 사리공, 3층의 탑신, 처마가 평박한 옥개석과 완만한 경사, 풍탁 장식, 그리고 상륜부 등 석탑의 상세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초기 석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굴사원의 건립이다. 석굴사원의 중심 석주와 같이 암반을 굴착하여 탑을 건립한 경우가 鹿谷寺址와 岩屋石塔에서 확인된다. 현재 鹿谷寺址와 岩屋은 관영채석장이었던 二上山 응회암 지대에 건립된 석굴사원으로 그 축조에는 대륙에 파견되었던 견수사, 견당사, 견신라사 등의 외교사절을 통해 습득된 석굴사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鹿谷寺址 13층 석탑은 상부로 올라 갈수록 체감이 적고 처마가 짧으며 1층 탑신을 제외한 2층 이상의 탑신이 매우 낮은 점 등에서 중국에서 유행한 누각식 탑의 외형과 유사하다. 岩屋 석탑과 龍福寺 석탑은 역시 각층 체감이 크지 않고, 옥개석 표현도 목조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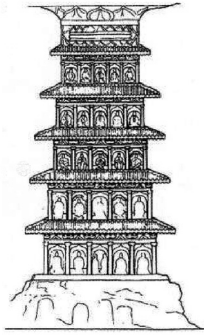
도 15 瀧寺磨崖佛 복원도(檀原考古學研究所, 1989, p. 340)

⁴⁰ 천득염·이명미, 「雲岡石窟에 나타난 초기 중국불탑의 특징과 유형」, 『大韓建築學會論文集』 계획계22-2(대한건축학회, 2006), pp. 106-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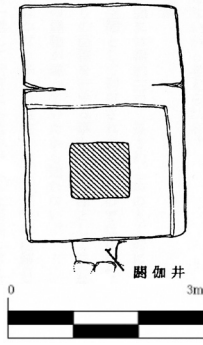
⁴¹ 吳虎錫, 「新羅時代 磨崖塔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探究』 11(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2), pp. 186-189.



도 16 山西 曹天
石塔(복위)
(常青, 1998, p. 49.)



도 17 雲岡 제39굴 중심
탑주(常青, 1998,
p. 51.)



도 18 岩屋의 구조
(山本義孝, 1993, p. 33)

지붕보다는 중국에서 유행한
누각식 전탑과의 관련성이 더
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들 鹿谷寺址와 岩屋 석
탑은 중국의 누각식 전탑과 석
굴사원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 석
굴사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벽면 불상 부조 앞 중앙에 석
주형 탑이 조성되어 있는 점
이다. 이러한 석주형 탑은 塔柱

또는 塔心柱, 혹은 浮彫塔으로 불리며⁴² 석굴사원 중심의 기둥 형태로서 하면과 상면이 암반에
이어진 형태인데 雲岡石窟의 2·6·21·39굴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鹿谷寺址와 岩屋에서 보이
는 마애삼존불과 정면 중앙 석탑의 구조는 중국 석굴의 영향과 당시 일본의 1탑식 가람배치가 복
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鹿谷寺址와 岩屋의 구조는 석굴 내부에 탑을 조성하고 있는 중국의 석
굴사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1탑식 가람배치 중에서 초기 飛鳥時代に 건립된 法隆寺
나 法起寺에서 보이는 동-서로 堂과 탑을 배치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일본 고대 석탑의 평면은 대체로 4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塔の森13層
石塔은 평면 6각형으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더불어 옥개석의 표현과 풍탁공, 안상, 안상내 연
화문 등 매우 장식적인 탑으로서도 주목된다. 동시기 통일신라 석탑에서는 6각형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⁴³ 전탑에 있어서도 한국의 신라 전탑은 평면 4각형만이 확인되는 반면에, 중국 수·당대
전탑은 4각형, 6각형, 8각형, 원형 등 다양한 평면이 장인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 시공되었다.⁴⁴ 중
국에 남아있는 평면 6각형의 전탑으로는 남북조기의 佛光寺 祖師塔을 비롯하여 당대의 廣東省
龍川縣의 正相塔(714년) 등이 확인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석탑에서도 평면 6각형의 예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塔の森13層石

42 楊超杰·嚴輝, 『龍門石窟雕刻粹編 佛塔』(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2),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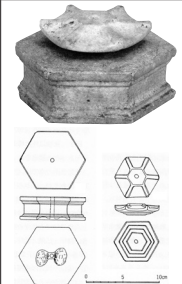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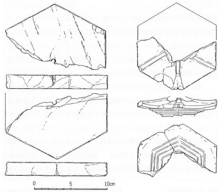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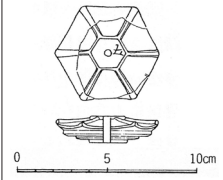

43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이외에 6각형으로 조성된 석조물로는 이차돈 순교비(818년)가 있으며, 건물지 가운데는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에서 확인된 구황동 苑池의 6각형 건물지가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2008)).

44 엄기표, 『新羅와 中國 隋唐代 전탑의 양식 비교 연구』, 『新羅史學報』35(新羅史學會, 2015), p. 200.

탑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형 석탑들이 전래되거나 출토되었다(표 4). 가장 주목되는 것은 正倉院에 소장된 평면 6각형의 대리석제 소형 석탑 부재이다. 이 正倉院 소장 白石塔은 기단부와 옥개석 1매가 남아있는데,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있어 기단부터 상륜까지 목탑의 찰주와 같은 부재로 조립되는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석탑은 대리석이라는 재료의 특수성, 그리고 탑신과 기단을 고정하기 위한 기단 상면의 접지면을凸자형태로 가공하는 등 당시 고대 일본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중국제로 추정되고 있다.⁴⁵ 한편 正倉院에는 삼채로 제작된 三彩塔(南倉34)도 소장되어 있다. 이 채유 도기는 같은 시기 당에서도 유행하였는데 일본에서 제작된 奈良三彩이다. 삼채탑은 높이 17.2cm로 7층까지 남아있는데 6각형의 평면이며 2층 기단에 탑신부를 올린 형태이다. 전체적인 모습이나 수법에서 앞서 살펴본 중국제 백석탑과 매우 유사하므로 백석탑이 삼채탑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⁴⁶ 이밖에 6각형 탑의 예로는 西隆寺址出土 石塔, 平城宮 馬療東方地區 出土 黃釉塔片, 그리고 頭塔 상부 石塔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매우 유사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6각 석탑의 발생은 698년 제작된 奈良國立博物館 소장의 <長谷寺銅板法華說相圖>와 중국에서 전래된 석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正倉院 소장의 소형 백석탑의 전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7세기 말 일본은 석탑의 6각형 평면을 변상도를 통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후 중국에서 제작되어 일본에 전래된 소형 석탑을 통해 석재 가공의 방법과 석탑의 세부 형태 등을 모방하여 석탑에 6각형 평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奈良·平安時代の 6角形 塔

正倉院 소장 白石塔	西隆寺址 出土 石塔	正倉院 소장 三彩塔	平城宮 馬療東方地區 出土 黃釉塔片	正倉院 소장 三彩塔
				

*출처: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p. 175, p. 179 및 奈良國立博物館, 2002.

⁴⁵ 奈良國立博物館, 『平成十四年 第五十四回 正倉院展目録』(2002), p. 109.

⁴⁶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1), p. 174.

일본의 고대 석탑 가운데 특수한 형태인 頭塔은 방단형 적석탑⁴⁷으로 그 기원과 관련하여 현재 남방계설, 한반도계설, 중국계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현재는 고고학적 성과에 따라 大阪府堺市土塔町大野寺土塔, 岡山県赤磐郡熊山町熊山遺蹟(熊山戒壇)등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大野寺土塔은 727년(神龜4)에 高僧行基(668-749)가 建立하였으며, 1면 53m, 12층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단으로 瓦葺하였다. 기와에 인명과 승니, 유성 씨족, 무성씨족 등으로 분류하여 당시 불교문화의 전파와 수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⁴⁸ 특히 大野寺土塔을 건립한 行基는 653년 입당하여 玄奘(602-664)에게 師事한 道昭(629-700)의 제자인 인물로,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高志才智로 일본에 『千字文』과 『論語』를 전한 王仁을 시조로 하는 書(西文)씨의 분파이며 어머니는 峰田吉爾比賣로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渡來人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道昭는 당에서 귀국하여 元興寺 동남모서리에 禪院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각지에서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行基 또한 道昭에게 사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玄奘-道昭-行基로 이어지는 관계를 토대로 본다면 西域 지역의 土塔에 대한 지식이 중국 西安慈恩寺大雁塔에 집약되어 나타났고, 道昭의 귀국과 行基와의 관계 속에서 土塔이 건립되었을 것이다.⁵⁰

熊山遺蹟은 東大寺, 唐招提寺의 계단과 유사하여 속칭 계단이라고도 하는데 1973~1974년에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졌다. 표고 500m의 고지대에 위치하며, 기단과 탑신을 자연석을 이용 계단식으로 쌓았다. 창건연대는 출토된 筒形用器, 三彩釉小壺 등의 편년(8세기중반)을 고려하면 8세기 후반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¹

頭塔의 한반도계설과 관련하여 방단형(계단식) 적석탑이 주목되어 왔는데, 그 연원이 신라는 물론 고구려와도 연관이 있다. 고구려는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遼東城에 土塔과 木塔

47 방단형 적석탑은 한국의 경우 “방단식 석탑”으로 처음 구분되었으며(진홍섭, 「所謂 方壇式 特殊形式의 石塔 數例」, 『고고미술』 110(한국미술사학회, 1971)),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段塔” 통칭되고 있다(김춘호, 『일본 段塔의 기원』, (제3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불교문화 분과 발표문, 2006)).

48 文化庁, 「Ⅱ. 解説」, 『国宝(美術工芸品)の指定』, p. 28.

49 井上薫, 『行基事典』(國書刊行會, 1997), pp. 12-13(김춘호, 앞의 논문(2006)에서 재인용).

50 井上薫, 「和泉國大野寺土塔の原流」, 『文化財學報』1(奈良大學文學部 文化財學科, 1982), pp. 7-8.

중국계설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근거는 秦咸陽宮第一号遺址와 같이 흙이나 전돌로 높은 대와 단을 조성하고 주변 목조 지붕과 처마를 올리는 이른바 台射建築의 판축 건물이 주목되기도 하였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1), pp. 164-170).

51 熊山町教育委員會, 『熊山遺跡 -岡山縣赤磐郡熊山町史跡熊山遺跡緊急調査概報-』, 1974 및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1), p. 165. 熊山遺蹟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戒壇으로 보는 견해이외에도 佛塔說, 墳墓說, 經塚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伊藤晃, 『熊山遺跡考』, 熊山遺跡群調査·研究會 講演會(熊山公民館, 2014)).

이 있었고,⁵² 靈塔寺에는 8각 7층 石塔이 건립되었다고 한다.⁵³ 현재의 시점에서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층을 비롯한 기록의 土塔의 건립 사실은 당시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頭塔의 건립에 관여한 良弁과 實忠은 모두 東大寺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엄학 승려였다. 良弁은 百濟氏 출신으로 新羅 學生 審祥(?~742)에게 직접 화엄교학을 전수받고 東大寺의 초대 別當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화엄학은 중국에서 성립된 직후에 義相에 의해 신라에 수용되었으나 일본에는 8세기 중반에 들어와서야 전래되었다. 740년(天平12)에 審祥은 東大寺의 전신인 왕실 원찰 金鍾寺에서 『華嚴經』을 강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화엄경』과 화엄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일본 華嚴宗의 성립으로 이루어졌다.⁵⁴ 이러한 이유에서 頭塔에 조성된 불상군에는 『화엄경』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頭塔은 방형 기단 위에 7층의 방형의 土壇을 쌓고 제1·3·5·7단 4면에 각11기씩 총 44기의 석불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28기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25기의 표면에 부조의 불보살상이 표현되어 있다. 각 면의 주요 상을 살펴보면, 북면은 善財童子·미륵불·비로자나불·삼세불 등이, 동면은 유마경 변상·다보불정토·법화경 변상·비로자나불·영취산 정토·이불병좌상 등, 남면은 석가불·선재동자·비로자나불·석가불정토·과거칠불 등을, 서면에는 선재동자·아미타불 정토·열반변상·선재동자·비로자나불 등이 새겨져 있다. 이는 良弁에 의해 건립된 頭塔의 제상이 화엄경설에 의거하여 비로자나불 우위에 있는 五佛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특히 연화대 위에 앉은 보살상을 향해 합장한 인물은 善財童子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頭



도 19 頭塔北面 제1층 西端 선재동자와 보살상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PL68-1.)

52 『三國遺事』卷3, 塔像4, 遼東城育王塔.

53 『三國遺事』卷3, 塔像4, 高麗靈塔寺.

54 崔鉉植, 「8세기 중엽 日本의 신라 華嚴學 受容과 『華嚴(經)文義要決問答』」, 『구결연구』23(구결학회, 2009), p. 112.

55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1), pp. 76-82.

탑은 『화엄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신라에서 전래된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⁵⁶

頭塔과 같은 형태의 탑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이 경주 능지탑이다. 능지탑은 흙과 석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시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형의 석탑은 견당사가 중단되는 7세기 후반동안 이루어진 신라와의 우호기에 신라의 전탑 양식과 함께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8세기 초부터 재개된 견당사에 의한 새로운 조탑 정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개된 방단형 적석탑(段塔) 가운데 가장 먼저 行基에 의해 727년 이후 土塔이 조성되었고, 그 영향으로 頭塔과 雄山塔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⁵⁷ 이처럼 頭塔의 기원은 당시 한국과 중국에서 유행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조탑 방법 중 土塔이나 塼塔, 또는 능지탑과 같은 특수형식의 방단형 적석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石塔寺3層石塔의 건립시기

일본의 석탑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石塔寺3層石塔이다. 石塔寺3층 석탑의 건립시기에 대한 문제는 일본 고대 석탑의 기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일찍부터 한일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 탑은 聖德太子가 건립한 것으로도 전하는데 1006년(寬弘3년) 地中에서 古石塔 1기가 발견되어 사찰의 이름이 石塔寺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발견된 석탑이 阿育王 시기에 조성된 八萬四千塔 중의 하나라는 『源平盛衰記』의 기사에⁵⁸ 근거하여 일본 最古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石塔寺3층석탑은 일본 석탑의 발생과 전개에 있어서 한반도 문화의 영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주목되었다.⁵⁹ 이러한 주장은 1937년 坪井良平과 藤澤一夫에게서 시작되었으며⁶⁰ 실측을 통한 백제 석탑과의 양식적 유사성과 669년(天智天皇 8) 12월 ‘좌평 鬼室集斯 등 7백여 인을 近江 蒲生에 옮겨 살도록 하였다’는 『日本書紀』의 기사가 그 근거가 되었다. 즉, 신라형 탑을 백제식의 수법으로 구성한 백제인의 탑으로 추정하였으며 백제계 석탑의 시원으

⁵⁶ 8세기 전반기 聖武天皇(재위724-749)이 발원한 여러 國分寺의 탑에 『金光明最勝王經』이 매납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석탑 출현이전 국가(왕실)에 의한 조탑의 목적은 사천왕 신앙과 관련된 호국사상이 중심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飛鳥資料館·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佛舍利埋納』(1989), p. 21).

⁵⁷ 김춘호, 앞의 논문(2006).

⁵⁸ 『源平盛衰記』卷第七「近江石塔寺事」 및 大町桂月 校訂, 『新訂源平盛衰記一』(至誠堂, 1911), p. 229.

⁵⁹ 신용철, 앞의 논문(2009), p. 122.

⁶⁰ 坪井良平·藤澤一夫, 「近江石塔寺の阿育王塔」, 『考古學』第八卷 第六號(東京考古學會, 1937).



도 20 石塔寺 3層石塔

로서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 후학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7세기 후반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백제양식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하여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중반 무렵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⁶¹ 또한 石塔寺3층석탑 자체 형식에 대한 백제와의 결정적 근거가 된 부여 장하리3층석탑이 고려시대의 석탑이라는 점, 石塔寺에서 奈良時代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등에서 石塔寺3층석탑의 하한을 10세기 이후까지 내려 보는 견해도 대두되었다.⁶²

石塔寺3층석탑의 출현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확인되는 예를 찾아보면, 瀧寺磨崖塔이 주목된다. 이 마애3층탑은 발굴조사 결과 白鳳時代に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는 石塔寺3층석탑의 奈良時代 건립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애탑은 石塔寺3층석탑의 기원과 관련하여 백제계 석탑, 또는 백제양식 석탑이 아닌 일본에서 자체 발생한 석탑의 한 유형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石塔寺3층석탑은 건립 방식이나 옥개석 하면에 마련된 탑신 홈과 처마의 수평처리, 옥개석에 표현된 지붕의 경사 처리 등 세부적 수법에 있어서 瀧寺마애탑보다 후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초기 사리공의 표현이 瀧寺마애탑에서와 같이 기단부에 위치하고 鹿谷寺址 석탑과 같이 1층 탑신에만 감실을 조성한 것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간략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關東地域에서 출토된 奈良時代(8세기후반)~平安時代(9세기)의 瓦塔⁶³(표 5)과 비교하면 石塔寺3층석탑에 보이는 간소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와탑은 크기는 1m 내외이고 대부분 목탑을 모방한 것이다. 기단부는 대부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1층 탑신은 높다. 1층 탑신에는 출입문을 표현하기도 하고 각층 탑신에도 방형의 창호를 내기도 하였다. 옥개는 기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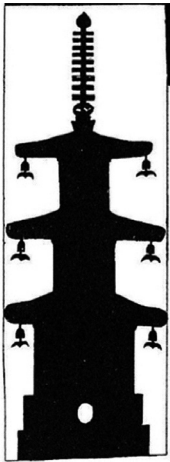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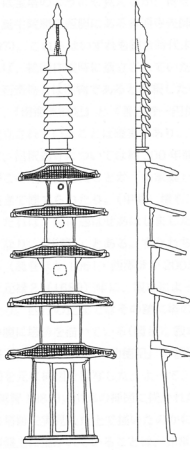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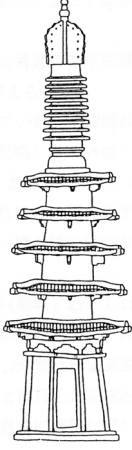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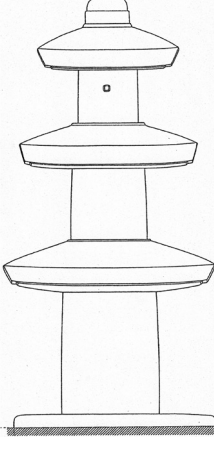
⁶¹ 전지혜, 앞의 논문(2011), p. 491.

⁶² 히시다 테즈오, 「白村江 이후 日本의 佛敎寺院에 보이는 百濟 遺民의 影響」, 『동양미술사학』 2(동양미술사학회, 2013), pp. 56-59.

⁶³ 松田朝由·海邊博史, 「四國の古代層塔」, 『香川考古』 第11号(香川考古研究會, 2009), pp. 85-89.

올린 목조건물의 지붕을 충실히 표현하였는데, 경사가 완만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륜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瓦塔은 8세기 후반부터 須惠器窯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여 9~10세기 대에 群馬縣을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埼玉縣과 東京에 이르는 關東과 愛知縣 등 東海지방에서 집중 출토되었다.⁶⁴ 특히 石塔寺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후반까지 須惠器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10세기가 되면 綠釉陶器의 생산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도기의 생산기술이 愛知縣 등의 선진 지역으로부터 이입되었다는⁶⁵ 점도 石塔寺3층석탑의 건립 시기 규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石塔寺 3層石塔의 비교

구분	瀧寺磨崖佛 복원도(부분)	群馬 上原田諏訪上遺蹟 출토 瓦塔	埼玉 東山遺蹟 출토 瓦塔	石塔寺 3層石塔
도면				

*출처 : 瀧寺磨崖佛(福原考古學研究所, 1989, p. 340), 瓦塔(松田朝由외, 2009, p. 88), 石塔寺 3層石塔(山川均, 2011, p. 5)

더불어 앞서 살펴본 일본 고대 석탑의 재료가 모두 응회암인 것과는 달리 石塔寺3층석탑은 화강암으로 조성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일본에서 석탑의 재료가 화강암으로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鎌倉時代(1185~1333) 중기를 지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렇다면 石塔寺3층석탑에서

⁶⁴ 永井邦仁, 「東海地方の古代瓦塔研究ノート」, 『研究紀要』7(愛知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6).

永井邦仁, 「續·東海地方の古代瓦塔研究ノート」, 『研究紀要』17(愛知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5).

⁶⁵ 히시다 테츠오, 앞의 논문(2013), p. 59.

⁶⁶ 전지혜, 앞의 논문(2011), p. 488에서 재인용.

보이는 화강암으로의 변화는 鎌倉時代 중기에서 보다 근접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일본 석탑의 재료로서 화강암이 채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石塔寺3층석탑의 건립연대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石塔寺3층석탑은 瓦塔이 전래된 이후인 地中에서 古石塔 1기가 발견되어 사찰명이 石塔寺로 바뀌게 되는 시기(1006년 기사)에 건립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지중에서 발견된 古石塔은 현재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正倉院 소장의 중국제 석탑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전래된 소형의 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봉안하거나 기념하기 위해 현재의 3층석탑을 건립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石塔寺3층석탑이 '백제양식' 석탑의 전래 과정에서 건립된 것이든 일본 자체 양식의 전개과정에서 건립된 것이든 일본 탑의 전개과정에서 본다면 7세기 후반 건립설은 재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기록, 양식 등을 고려하면, 10세기 말에서 1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석탑의 건립연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V. 맺는말

이상에서 일본 고대 석탑의 분포 현황을 검토하여 석탑의 건립배경과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일본에서 처음 석탑이 조영되는 시기는 8세기 중반경이며, 초기 석탑의 재료로 주변에 분포하는 석재 중 뛰어난 耐火性和 神聖性を 부여받은 응회암이 많이 채택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古墳時代 이래로 石棺의 재료로서 특권 계층에서만 사용하였던 응회암을 부처의 사리를 모신 석탑 건립에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석탑은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에서 유행한 석굴사원과 탑주식 탑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를 경유하거나 정착된 한반도의 불교문화 또한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양식적으로나 구조상 구체적인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일본에서 성행한 1탑 1금당의 가람구조에 따라 석탑도 1탑의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法隆寺(式) 또는 法起寺(式)의 가람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頭塔과 같이 기념비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독립적으로 배치된 탑도 건립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고대 석탑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 층탑 이외에도 계단형 적석탑과 마애탑 등 중국과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佛法과 佛舍利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석탑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주요 세력은 왕실 밀접한 관련을 맺은 승려 집단이었다.

그들은『法華經』또는『華嚴經』등의 경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녕과 중생의 제도, 종교적 내지는 사상적 우월성을 표출하기 위해 석탑을 건립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사찰의 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神佛齧습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본 고대 석탑의 평면은 4각이 대부분이지만 塔の森13層石塔과 같이 평면 6각형의 독특한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전래된 正倉院 소장의 소형 석탑이 기원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일본의 고대 석탑은 석굴사원의 모방, 중국제 소형 석탑의 전래에 따른 새로운 평면의 적용 등 중국 불교문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래한 이후 지속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물론 백제 멸망후 일본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였던 백제계 씨족의 활약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요소도 반영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백제와 백제계의 역할을 통해 石塔寺3층석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石塔寺3층석탑의 7세기 건립설 및 9세기 설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瓦塔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고고학적 발굴자료, 그리고 양식적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본 고대 석탑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石塔寺3층석탑의 건립연대는 10세기 말에서 1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일본 고대 석탑의 출현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현저히 늦은 이유나 당시 사찰의 목조건축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점을 惠諒하여주시기 바란다.

*주제어(key words)_일본(日本, Japan), 고대(古代, ancient period), 석탑(石塔, stone pagoda), 마애탑(磨崖塔, rock-carved stupa), 외탑(瓦塔, baked clay stupa), 석탑사(石塔寺, Ishidō-ji Temple)

■ 투고일 2016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6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1. 한국문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 2008.
- 久野健 외, 秦弘燮譯, 『日本美術史』, 悅話堂, 1978.
- 김춘호, 『일본 段塔의 기원』, 제3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불교문화 분과 발표문, 2006.
- 신용철, 『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 -나라현 히노쿠마데라(檜隈寺) 석탑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 문화』 8, 2009.
- 엄기표, 『新羅와 中國 隋唐代 전탑의 양식 비교 연구』, 『新羅史學報』 35, 2015.
- _____, 『中國 云居寺의 唐代 石塔에 대한 考察』, 『東岳美術史學』 9, 2008.
- 吳虎錫, 『新羅時代 磨崖塔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探究』 11, 2012.
- 전지혜, 『백제양식석탑과 일본 석탑사(石塔寺) 석탑의 비교 연구 -건립연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0, 2011.
- 정병삼,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 『한국고대사연구』 27, 2002.
-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진홍섭, 『所謂 方壇式 特殊形式의 石塔 數例』, 『고고미술』 110, 1971.
- 천득염·이명미, 『雲岡石窟에 나타난 초기 중국불탑의 특징과 유형』, 『大韓建築學會論文集』 계획계 22-2, 2006.
- 崔鉉植, 『8세기 중엽 日本의 신라 華嚴學 受容과 『華嚴(經)文義要決問答』』, 『구결연구』 23, 2009.
- 홍운식, 『古代日本佛敎에서의 三國佛敎의 역할』, 『國史館論叢』 24, 국사편찬위원회, 1991.
- 후지 케이스케, 『일본의 건축 : 동아시아 삼국에서 일본건축의 독자성-6-8세기의 기술수입에 관한 몇가지 문제』, 『건축』 40(8), 1996.
- 히시다 테츠오, 『白村江 이후 日本의 佛敎寺院에 보이는 百濟 遺民의 影響』, 『동양미술사학』 2, 2013.

2. 동양문헌 및 자료

- 古川登, 『越前坂井市の石造多層塔』, 『若越郷土研究』 52, 2008.
- 廣岡義隆, 『佛足石記·佛足石歌碑本文影復元』, 『日本語學文學』 1990-1, 1990.
- _____, 『文室真人智努の生涯: 天平一知識人の憂愁』, 『日本語學文學』 1991-2, 1991.
- 九州國立博物館, 『古代日本と百濟の交流』, 2015.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古代の碑-石に刻まれたメッセージ-』, 1997.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史跡頭塔發掘調査報告』, 2001.

- 奈良國立博物館,『平成十四年 第五十四回 正倉院展目錄』,2002.
- 奈良県立橿原考古學研究所,『奈良県遺跡調査概報 1986年度』第2分冊,1989.
- 奈良県編,『奈良県史蹟勝地調査會報告書 第二回』,内良明新社,1914.
- 大町桂月 校訂,『新訂源平盛衰記一』,至誠堂,1911.
- 福地謙四郎,『日本の石造層塔』,理工學社,1995.
- 飛鳥資料館・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佛舍利埋納』,1989.
- 濱島正士,『日本佛塔集成』,中央公論美術出版,2001.
- 山本義孝,『二上山麓の石窟寺院-鹿谷寺・岩屋の資料化と背景』,『史學論叢』2,1993.
- 山川均,『日本石塔資料集』,石文社,2011.
- 相原嘉之,『奥飛鳥における文化的景觀の形成 -飛鳥川上流域の考古學研究を中心に-』,『明日香村文化財調査研究紀要』8,2009.
- 常 青,『中國古塔的藝術歷程』,陝西人民藝術出版社,1998.
- 杉山信三,『朝鮮の石塔』,章國社,1944.
- 小岩正樹,『日本古代建築における一の研究』,早稲田大学大学院 博士學位論文,2014.
- 若杉慧,『日本の石塔』,木耳社,1970.
- 松田朝由・海邊博史,『四國の古代層塔』,『香川考古』第11号,2009.
- 楊超杰・嚴輝,『龍門石窟雕刻粹編 佛塔』,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2002.
- 永井邦仁,『東海地方の古代瓦塔研究ノート』,『研究紀要』7,2006.
- 永井邦仁,『續・東海地方の古代瓦塔研究ノート』,『研究紀要』17,2015.
- 熊山町教育委員會,『熊山遺跡 -岡山縣赤磐郡熊山町史跡熊山遺跡緊急調査概報-』,1974.
- 伊藤晃,『熊山遺跡考』,熊山遺跡群調査・研究會 講演會,2014.
- 일본 宮内廳 홈페이지 <http://shosoin.kunaicho.go.jp/>
- 日本石造物辭典編集委員會,『日本石造物辭典』,吉川弘文館,2012.
- 前沢和之,『古代東國の石碑』,山川出版社,2008.
- 井上薰,『和泉國大野寺土塔の原流』,『文化財學報』1,1982.
- 町田章,『古代の宮殿と寺院』,講談社,1989.
- 川勝政太郎,『日本石造美術辭典』,東京堂出版,1998.
- 太子町立竹内街道歴史資料館,『二上山麓の古代寺院』,1995.
- 片岡直樹,『長谷寺銅板法華說相圖の銘文について』,『新潟産業大學 經濟學部紀要』第40號,2012.
- 坪井良平・藤澤一夫,『近江石塔寺の阿育王塔』,『考古學』第八卷 第六號,1937.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석탑이 전형양식을 이룩하기 이전, 즉 일본 석탑의 출현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석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8세기를 중심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석탑의 분포 양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일본 고대 석탑의 기원과 관련하여 건립 배경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일본에서 처음 석탑이 조성되는 시기는 8세기 중반경이다. 석탑의 주재료는 내화성이 뛰어난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古墳時代 이래로 신성성을 부여받아 특권계층에서만 사용하던 二上山의 응회암이 주로 채택되었다. 일본의 석탑은 불교 사원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어 鹿谷寺址와 岩屋 등 초기 석굴사원의 중심적 위치에 조성되었다. 특히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에서 유행한 석굴사원과 塔柱式 탑, 그리고 한반도를 경유한 불교문화가 동시에 영향을 주어 일본에서도 한국과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佛法과 佛舍利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석탑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석탑은 다양한 유형으로 건립되었는데,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일반형 석탑인 層塔이 주를 이루며 이후 일본 석탑의 정형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세력은 승려집단이었다. 龍福寺石塔과 山上3層石塔의 명문과 頭塔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留學僧과 그의 제자들은 『法華經』 또는 『華嚴經』 등의 경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동시에 종교적·사상적 우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神佛習습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석탑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고대 석탑의 평면은 4각형이 대부분이지만 塔の森 13層石塔과 같이 평면 6각형의 독특한 석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전래된 소형의 6각형 석탑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대 석탑은 백제에 의한 불교문화의 전수, 渡來人, 백제계 씨족과 僧侶들의 활약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불교문화가 일본의 석탑 발생과 건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석탑에서 백제나 신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고대 석탑은 석굴사원의 모방, 중국계 소형 석탑의 전래에 따른 새로운 평면의 적용 등 중국의 불교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Stone Pagodas in Ancient Japan

Oh Ho Seok^{*}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goda in Japan before it was first established in its typical style and also seeks to lay the found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of pagodas from Korea and Japan. First, I study the distributions of stone pagodas in Japan constructed in the eighth century. Based on my observations, I suggest the origins of the stone pagoda in the ancient period an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its development.

It was the middle of the eighth century when a stone pagoda was first built in Japan. The medium was mainly stone, which had strong resistance against fire. Especially since the Kofun period, tuff from the Nijozan Mountain was chosen because it was known to have sanctity and, thus, was exclusively used by a privileged class. A stone pagoda in Japan was regard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Buddhist temple and thus was constructed at a central location, as seen from the early examples of cave temples such as the Rokutan-ji Temple ruins and Iwaya Caves. Given the commonalities between China and Korea, cave temples, central stupa-pillar caves, and the Buddhist culture were transmitted to Korea, simultaneously affecting Japan. Consequently, as a means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law and Buddhist relics, stone pagodas were also erected in Japan. In this early period stone pagodas were constructed in various styles, but the storied pagoda became the typical style of Japanese

^{*}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pagodas, regardless of their limited quantity.

Monks had a leading role in constructing pagodas in Japan. As seen from such examples as the stone pagoda at the Ryūfuku-ji Temple, an inscription of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from Yamagami, and Zutō (a pyramid pagoda), monks studying abroad and their disciples prayed for peace in the country and saved people based on the Lotus Sutra (Avatamsaka Sutra). They also attempted to achieve the syncretism of Buddhism and *kami* (native gods) worship and thus built stone pagodas as a means of reinforcing religious superiority. The plane of these ancient pagodas is mostly rectangular, but sometimes peculiar hexagonal-shaped pagodas were built, such as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at Tō-no-Mori. It originated from the small, hexagonal stone pagodas transmitted from China.

It is known that the origin of the stone pagoda of Ancient Japan was influenced by Buddhist culture via the Baekje, people who had come over to Japan from Baekje (*Tōraijin*), and monks. Howeve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stylistic similarities between stone pagodas from Baekje or Silla and Japan.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assume the influence of Chinese Buddhist culture, as seen from the emulation of cave temples; adaptations of new forms occurred by the transmission of small pagodas from China.